



李(1921~1986)
大
聲
선
생

선생께서는 1921년 서울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은 서울에서 보냈으나, 한국 감리교 개척자의 한분이신 할아버님이 牧會관계로 청소년 시절엔 할아버님을 따라 여러곳으로 전전하다가 고등학교는 함흥에서 영생고보를 졸업하였다.

그후 만주의 어느 광산에서 측량업무에 종사할 때 이 광산조사를 위하여 방문한 지질학자들의 지질조사 현장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볼 때 선생께서는 지질학에 대한 호기심과 지질학을 통한 국가 봉사의 사명감을 갖게되어, 지질학연구의 뜻을 굳히게 되었다.

선생께서는 곧 그 곳 생활을 청산하고 단신 상경하여 경성광업전문학교 채광학과에 입학하여 지질학 연구의 첫발을 밟게 되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질학과를 졸업한 것이 1950년 5월이었으며, 대학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입학후 한달도 못되어 6.25 동란이 일어나 석사과정은 부산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마쳤다.

정부의 서울 환도와 함께 상공부 중앙 지질 광물연구소의 지질과장직을 맡아 거의 폐허화된 동 연구소를 재건하는데 진력하였으며, 그 당시 미국지질조사소에서 1년여간의 연구생활을 통해 선진국의 최신 연구경향과 방법론 등을 익힌후 귀국하여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60년초 선생께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지구과학과가 창설됨에 따라 교수로 초빙되어 초창기 지구과학과의 기반을 세우는데 헌신하였

“韓國의 火成岩石學 및 地化學 연구의 개척길 열어”

으며, 1967년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로 초빙을 받아 정년 퇴임시까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였다.

1970년에는 일본 東北大學에 1년간 유학하여 한국 沃川帶지역에서의 火成活動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정리하여 理學博士學位를 취득하였고, 귀국후 연구활동에 더욱 정진하였음은 물론 학교와 학회에서도 여러 重責을 맡아 한시도 한가 로움이 없는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다.

학교에서는 입학시험출제위원장, 학생상담소장을 거쳐 이과대학장을 지내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였고, 학회에서는 대한지질학회 편집위원장, 광산지질학회 편집위원장, 대한지질학회 회장, 한국지구과학교육회장, 한국지구과학협회회장 등을 지내면서 지질학계 학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재 과학보존위원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문화재보존 사업에도 크게 활약하였다.

이렇게 바쁜 업무중에도 연구활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정진하여 그동안 수 십편의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하였으며, 특히 옥천대내에서의 화성활동을 비롯한 한국의 화성 암석학 분야와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전남 해남지역의 舍油質物 地層에 대한 地化學的 연구는 널리 알려진 값진 연구로서 한국의 화성암석학 및 지구화학 연구의 개척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와 같은 선생의 학문적 업적이 크게 인정되어 운암지질학상, 국민훈장 목련장, 서울시 문화상,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고, 1986년에 학술원 정회원으로 추대되었다.

1986년도 정년퇴임후에 「대학의 강의와 행정의 무거운 짐을 벗고 오로지 지질학 연구에만 전념하겠다」며 “성산암석학연구소”를 개설하였던 선생께서 졸지에 타계하니 우리 지질학계는 하나의 큰 선도자를 잃은 공허함에 실로 그 충격을 가늠길이 없다.

李 河 榮 (延世大교수·地質學)